

# 나주시, '국립 나주 에너지 전문과학관' 건립 추진 본격화

### 빛가람 혁신도시 기반 에너지 특화 과학문화 거점 조성 에너지 공기업 집적 강점... 미래 에너지 인재 양성 기대 전시, 교육, 체험 결합한 국가 거점 과학문화시설 추진

전남 나주시가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위상을 바탕으로 '국립 나주 에너지 전문과학관' 건립 추진에 속도를 내며 미래 에너지 인재 양성과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국가 거점 조성 나섰다.

나주시는 에너지 공기업이 밀집한 빛가람 혁신도시의 강점을 활용해 에너지 산업과 과학문화가 결합된 특화 과학관을 조성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과학 교육과 체험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학관 건립의 전문성과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기반 마련에도 나섰다.

6일 나주시에 따르면 강상구 부시장은 지난 5일 국립광주과학관을 방문해 과학관 운영 현황과 전시 콘텐츠 구성, 교육 프

로그램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나주시와 국립광주과학관은 전시 콘텐츠 공동 개발과 과학문화 프로그램 교류, 전문 인력 자문, 운영 노하우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에너지 특화 콘텐츠 개발과 청소년 대상 과학 인재 육성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국립 나주 에너지 전문과학관은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 중심지인 나주에 조성되는 에너지 특화 과학관으로 에너지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고 체험 중심 전시와 교육 콘텐츠를 통해 미래 에너지 인재 양성을 목표로 추진된다.

특히 나주에는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전력거래소 등 주요 에너지, 정보통신, 농생명, 문화예술 공공기관이 자리하고 있어 16개 공공기관과 과학문화 인프라 간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관은 기존 과학관의 기초과학에 에너지AI, 스마트 그리드, 인공태양(핵융합) 에너지 등 미래 에너지 기술을 체험형 전시 콘텐츠로 구현해 학생과 시민이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할 예정

이다. 또 실감형 미디어아트관, 어린이 에너지 창의체험관, 청소년 진로체험관, 에너지 산업사 전시관 등을 갖춘 복합 과학문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초·중·고 학생 대상 맞춤형 에너지 교육 프로그램과 교원 연수, 기업 연계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지역 인재 양성의 거점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이명열 기자



## 광양의 봄 '매화'로 시작해 '달빛'으로 이어진다

### 13일 광양매화축제 개막... 해비치로 달빛해변 '달빛365'까지

대한민국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제25회 광양매화축제 개막일인 13일(금), 광양에서는 낮과 밤을 잇는 봄 관광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낮에는 광양매화마을에서 제25회 광양매화축제가 개막하고, 밤에는 해비치로 달빛해변에서 야간 문화 프로그램 '달빛365'가 운영된다.

제25회 광양매화축제는 13일 오후 1시 30분 광양매화문화관 앞 주차장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간다. 축제는 예술·문화·먹거리·체험 프로그램이 어우러진 행사로 22일까지 열흘간 광양매화마을 일원에서 열린다.

개막식은 광양시립예술단의 공연으로 시작되며, 임재권 화백의 민화 작품과 방우송 감독의 해설이 더해진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축제 기간에는 공연·체험·전시 프로그램이 축제장 곳곳에서 진행되며, 김국 한상차림, 광양불고기김밥, 광양 매실한우버거, 매화·매실 디저트 등 축제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먹거리도 마련된다. 입장료는 성인 6,000원,

청소년 5,000원이며, 입장권 구매 시 전액 환급되는 지역상품권은 축제장 내 음식점과 체험 프로그램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해가 지면 축제의 분위기는 해비치로 달빛해변으로 이어진다. 해비치로 달빛해변에서는 매월 둘째 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야간 문화 프로그램 '달빛365 불금day'가 운영되며, 이날도 푸드트럭과 버스킹 공연이 진행된다.

'해비치로 달빛해변'은 도심에서 바다를 가까이 마주할 수 있는 휴양형 문화공간으로, 산책과 휴식,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된 도심형 해변이다. 해변에는 버스킹 공연장과 푸드트럭 존 등 다양한 문화시설이 마련돼 시민과 관광객이 바다를 배경으로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광양매화축제 개막일인 13일에는 낮에는 매화꽃이 만개한 축제장을, 밤에는 해비치로 달빛해변 야간 프로그램을 함께 즐길 수 있다"며 "광양 관광 슬로건인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여행'을 경험할 수 있는 하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신선호 기자

영광군은 3월 5일, 영광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에서 「2026년 영광법성포단오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 업무협의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축제 준비에 돌입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영광군 관계자를 비롯해 법성포단오제 보존회 및 축제 관계자들이 참석해 축제의 추진 방향과 세부 준비 사항을 공유하고, 실행 중심의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국가무형유산으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는 동시에, 변화하

## 영광법성포단오제, 축제의 시간이 다시 흐른다

### 관계자 업무협의로 2026년 축제 준비 본격 시동

는 관광 트렌드에 맞춰 방문객의 체험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운영 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전통 제례와 민속놀이 등 고유 가치를 충실히 계승하는 한편, 공간 구성의 효율화, 관람 동선 개선, 세대별 맞춤형 프로그램 강화 등 축제의 완성도

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축제 준비 단계부터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영광군 관계자는 "영광법성포단오제는 지역의 역사와 공동체 정신이 살아 숨 쉬

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전통의 품격을 지키고, 현대적 감각을 더해 누구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광법성포단오제는 매년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는 영광의 대표 전통축제로, 2026년에도 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담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영광/이현식 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6일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한 '2026년도 청년농업인 창업 스케일업(성장) 지원사업' 공모에 화순을 산들녘(대표 김아람) 농가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청년농업인 창업 스케일업 지원사업'은 시장 진입에 성공한 청년 농업인을 발굴해 개소당 최대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성장 지원사업이다.

## 화순군, 2026 청년농업인 창업 스케일업 공모 선정

### 전남 3개소 중 선정 쾌거... 건강 원물차 브랜드 고도화 지원

기업의 브랜드 고도화와 생산 규모 확대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전남도 내에서 총 3개소가 선정됐으며, 화순군 산들녘 농가는 '1일 1포 1리터 건강 원물차(높은 호박차)' 사업모델을 발표

해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선정된 농가는 앞으로 경영 컨설팅과 시설·장비 구축 등 다양한 지원을 받아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농업의 미래를 이끌 성장 모델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최은순 농업센터기술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우리 군 청년 농업인의 창의적인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청년농업인이 화순 농업의 핵심 주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김종환 기자

영암군이 5일 청년센터 달빛청춘마루에서 '2026년 영암군 청년발전위원회 정기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지역 청년정책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

위원회 위원들은 지난해 영암군의 일자리, 주거, 복지·문화, 참여 등 분야에서 총 53개 사업을 추진해 청년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정착 기반 마련한 성과를 공유

## 영암군, 청년발전위 정기회의 열고 올해 청년 정책 모색

### '영암에서 성장하는 청년의 내일' 비전 등 올해 청년 정책 공유-논의

했다.

대표 정책으로 청년 주도 주민 참여 '영암 로포데이' 운영, 청년 일자리 카페 취업 연계 확대, 청년문화수당 지원 등이 소개됐다.

이어진 올해 청년정책 시행계획 심의

에서는 영암군의 '영암에서 성장하는 청년의 내일' 비전을 놓고 논의가 이뤄졌다.

아울러 △영암에 뿌리내리고 미래로 성장하는 청년 △네트워크가 기회로 이뤄지는 청년 교류 △일상 중심의 청년 북

지문화 환경 △정책의 주체로 성장하는 청년으로 나뉜 주요 추진방향과 5개 분야 56개 청년 정책도 회의의 안건으로 올랐다.

김선미 영암군 인구정책과장은 "지역 청년의 성장이 곧 영암군의 미래다. 지역 실정에 맞는 청년정책을 지속 발굴·추진하겠다. 청년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발전위원회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영암/김희선 기자

## 구례소방서, 해빙기 대비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 실시

구례소방서(서장 한만조)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해빙기를 맞아 지난 5일 지리산국립공원공단 전 남사무소와 함께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해빙기는 기온이 오르면서 지반이 약해지고 얼었던 땅이 녹아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시기다. 특히 등산로·도로·하천 주변에서는 낙석이나 지반 침하 등의 위험 요소가 있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점검은 최근 3년간 낙석발생으로 긴급 조치된 지역과 급경사지·재해위험

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하며, 탐방객 및 주민의 안전을 재확인하였으며, 탐방객 대상으로 안전산행 캠페인을 실시하여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한만조 소방서장은 "요즘처럼 큰 일교차가 이어지는 해빙기에는 주변 시설물을 관심 있게 살피고 위험 요인을 발견하면 즉시 소방서나 가까운 관청으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며 "해빙기 안전 수칙을 준수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구례/한정호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